

2019 년 11 월 24 일 “(추수감사주일) 진짜 감사”(롬 14:5-6)

<도입>

동영상 – Dr. Rick Rigsby 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Bg_Q7KYWG1g

삶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무너진 삶에 힘을 더해주는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 성경적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감사가 끼치는 유익

감사는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유익합니다. 서로 간에 깊고 아름다운 사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인격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땡큐라고 말할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을 의식하도록 일깨워주고 you're welcome 이라 응답할 때 너는 내가 존중하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도덕적 예의 범절을 강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 받으면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통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줄이면 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더 좋은 사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감사가 갖는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길

어릴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감사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어 보이고 또한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이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치를 발견할 때 느낍니다. 작은 만족이나 작은 안도를 느낄 때 나오는 것이며 일상 속에서, 또한 고난 속에서조차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는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롬 14 장은 믿음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며 따르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선시 하며 사는 것입니다.

14:5-6 에는 날을 지키는 것과 먹는 문제에 관해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니까 지키는 것은 무용한가?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또는 제사음식)를 안 먹는데, 예수 믿고 새 삶을 살더라도 안 먹는게 더 낫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먹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확정한다면 둘 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정입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한다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진정한 새 삶을 산다면 전천후 감사가 될 일이 많습니다. 예배에는 경배 찬양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면 한 쪽에서는 꼭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넥타이를 해야 하는가, 왜 꼭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속에서 주를 위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천후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과 그분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 없이 느껴지고 바닥의 상황일지라도 가치가 발견되면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함께 병행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 절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무시하면 자신의 삶이 감사로 바뀔 수 없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자기 도취적 모순입니까?

반대로 나의 삶에 감사를 보장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이며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상황이 열악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맺음>

어떤 것은 좋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범사에서 숨겨진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찾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나의 감사의 생활을 돌아보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보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애써야 할까요?